

---

#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## - 주요정책부문-

---

2015. 1.

# 목 차

1. 자체평가 개요 .....	1
2. 평가결과 총평 .....	4
(1) 평가결과 개요 .....	4
* <b>평가결과표</b> .....	7
(2) 주요성과 .....	8
(3) 개선 보완사항 .....	13
3. 2013년 자체평가결과 개선실적 .....	15

# 1. 자체평가 개요

## (1) 중점 평가방향

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지표 및 비중을 일부 조정

-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및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도의 가중치 강화

※ 성과달성도(45점), 계획수립의 적절성(20점), 시행과정의 적절성(15점), 정책효과성(20점)

측정방법을 객관화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

- 점수구간 설정방식 대신 확정점수 부여방식 채택 (예 : 목표달성도)
-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배점에서 '매우미흡'인 경우 0점 부여하고 의견수렴 및 정책분석 충실성은 우수 이상 30% 이내로 제한

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지속 추진

- 자체평가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 세분화

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

-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, 문제점 및 원인분석,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서 서술적으로 평가

※ 점수배정 기준 (정성평가) \*정량평가도 5등급 평가시 동일하게 적용

점수별(등급별)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
배정비율(%)	100	75	50	25	0
2.5점 만점	2.5	2.0	1.0	0.5	0
5점 만점	5	3.75	2.5	1.25	0
10점 만점	10	7.5	5	2.5	0
15점 만점	15	11	7.5	3.75	0
20점 만점	20	15	10	5	0

## (2) 평가추진 개요

- 자체평가위원회 및 주요정책과제 평가지원반 구성, 운영
- 평가방법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실시
-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7단계로 평가  
매우우수(5% 이내) → 우수(20% 이내) → 다소우수(35% 이내) → 보통(65% 이내)  
→ 다소미흡(80% 이내) → 미흡(95% 이내) → 부진(95%초과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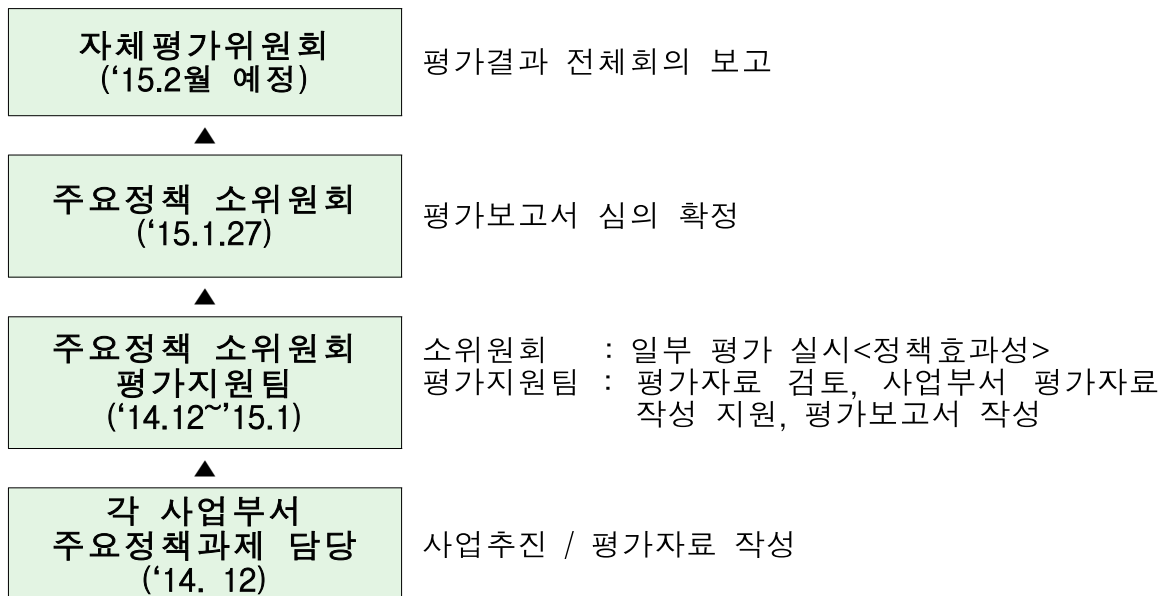
### □ 평가추진 체계

-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반 구성
  - 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, 평가의 객관성, 독립성 제고하고 부문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
  - 각 과제별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을 위한 평가지원팀 구성·운영
  - 자체평가 소위원회 평가결과 보고서는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보고

### □ 평가방법

- 주요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절차
  - 중간 점검 : 연2회(7월말, 12월말)
  - ※ 상반기 및 하반기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
  - 최종평가 : 연1회('15.1월)

### 《최종평가절차》



○ 평가방법

-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'14년 12월말 완료 기준으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제출
  -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검토 후 평가보고서 작성
  - 소위원회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·확정
  -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
  -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
    -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이 제기된 경우, 자체평가 전체위원회에 재심의 부의 가능
- ※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는 전자통합시스템(e-IPSES)으로 실시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- 평가대상 : 「2014년 성과관리시행계획」의 29개 주요정책과제
  - 성과지표 47개(과정지표 8개, 산출지표 16개, 결과지표 23개)
- 평가지표 : 4개 항목, 10개 평가지표
  - 성과달성도(목표달성도, 성과지표의 적절성)를 45%로 설정
  - 계획수립의 적절성,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정책효과성 등을 55%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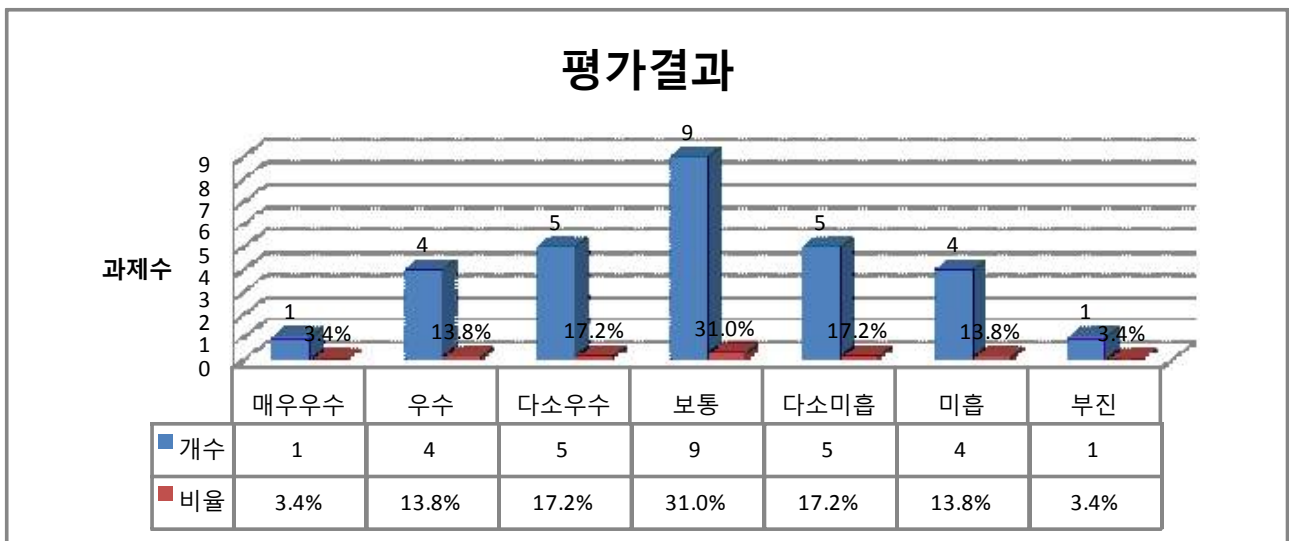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평가지표
성과달성도(45점)	목표달성도(15점)
	성과지표의 적절성(20점)
	난이도 및 중요도(10점)
계획수립의 적절성(20점)	계획수립시 사전조사(10점)
	정책분석의 충실성(10점)
시행과정의 적절성(15점)	추진일 준수여부(5점)
	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(5점)
	자체평가위원과 소통의 적극성(5점)
정책효과성(20점)	정책효과 발생여부(10점)
	정책영향 고객충족 기여정도(10점)

## 2. 평가결과 총평

### (1) 평가결과 개요

□ '14년도 2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- 매우우수 1개(3.4%), 우수 4개(13.8%), 다소우수 5개(17.2%), 보통 9개(31.0%), 다소미흡 5개(17.2%), 미흡 4개(13.8%), 부진 1개(3.4%)로 나타남 <7단계 상대평가>



- 우수이상 과제는 “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체성 회복” 등 5개과제이며, 미흡이하 과제는 “문화재 보호 활용 민간참여 확대” 등 5개과제인 것으로 평가됨
- 「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체성 회복」은 고도지역 주민지원사업 법률적 근거마련(2011년)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고도 주민지원 사업비 반영(15년 국비 80억원)으로 고도에 어울리는 주거환경·가로경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정책효과성 등 높은 평가를 받았고
- 「문화재 보호 활용 민간참여 확대」는 목표 달성도 부분(70%미만), 정책효과성 등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

- 전체 29개 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24개 과제는 100%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5개 과제는 제시한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
  - \* 1개의 평가대상 과제에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가중치 적용하여 산정
  - 총 57개 성과지표(성과목표 10개, 관리과제 47개) 중 47개 지표는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11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
  -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로는 전문가 평가 지표가 일부 있었고, 「문화재 보호·활용 민간참여 확대」 과제의 성과지표인 ‘문화재지킴이 활동인원’과 ‘문화재지킴이 활동 온라인 보고건수’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함
  
-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정책분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
  - 대부분의 과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에 머물고 있어 SWOT분석, 사례분석 등의 정책효과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  
- 과제 시행 과정에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항목에서는
  - 29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, 22개 과제는 일부 지연이 있었고, 특히 「역사 문화환경 관리체계 개선」 과제는 2013년에 이어 계획된 일정을 70% 미만 이행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
  -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의 적극성 노력은 8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한 반면, 14개 과제는 전혀 실시하지 않아 평가기준에 미흡한 실정임. 특히, 14개 과제 중 소속기관 과제 6개 과제가 모두 포함되었는데 이는 과제 성격상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
  
- 정책효과성 항목에서는
  - 정책효과성이 평균 6.2점, 고객지향성이 평균 5.1점으로 다소우수 또는 보통정도 수준임. ‘궁중문화축전’을 시범 운영한 「역사문화

브랜드 가치 제고」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의 환수성과를 이룬 「국외소재문화재 환수」와, 덕수궁 석조전 개방, 궁 야간개방을 추진한 「조선왕궁 왕릉 복원 및 개방 확대」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음

- 향후, 정책효과와 관련해서 계획수립 시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국민과 고객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

#### VIP 지시사항(2014.12.23)

앞으로 정책 평가도 정책의 집행여부와 함께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,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용해서 혜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의 상당 부분이 할애되도록 할 것



< 평가결과표 >

순위	관리과제명	등급
1	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체성 회복	매우우수
2	문화재 점검·관리 체계 강화	우수
3	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기반 확대	
4	문화재 수리·관리 체계 강화	
5	조선왕궁·왕릉 복원 및 개방 확대	
6	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정립 및 활성화	
7	조선왕실문화 체험 및 확산	다소 우수
8	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·활용	
9	근·현대 문화유산 체계적 조사·보호	
10	문화유산 교육·체험 활성화	
11	문화재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	보통
12	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	
13	문화유산디지털 DB구축 및 서비스 제고	
14	서원·향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	
15	소통 협력형 매장문화재 관리	
16	역사문화브랜드가치제고	
17	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	
18	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	
19	역사문화환경 관리체계 개선	
20	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	다소미흡
21	국민중심의 문화콘텐츠 활용 확대	
22	문화재 보호기금 확충	
23	자연유산 보호·활용기반 조성	
24	건조물·동산문화재 보존 및 접근성 강화	
25	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·활용	미흡
26	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 내실화	
27	문화재 조사 연구 경쟁력 강화	
28	아리랑 전승 기반구축 및 가치 확산	
29	문화재 보호·활용 민간참여 확대	부진

## (2) 주요성과

### □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 제도 개선 및 진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의욕 향상

- 무형유산 연구체험·교육관람의 복합문화 서비스 공간 「국립무형유산원」 개원(10월)
  - \* (보유자 등) 공연기회 확대 / (국민) 교육, 전시, 공연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
-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수 4.9% 증 : ('13년) 5,477명→('14년) 5,747명
- 전승자 우대정책 지속 추진
  - \* 보유자(월125~162만원→131~171만원), 조교(월62~87만원→66~92만원) 등

### □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발굴조사 제도 개선 추진

- 일정규모 민간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(법률 '14.1.28.), '15년 20억원 예산 신규 반영됨에 따라 중·소규모 민원 100% 해소 기대
  - \* '13년 지표조사비 70억원 중 민원 제기 중·소규모 지표조사비는 20억원 정도 임
- 「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제정·고시 ('14.2.4.),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적용한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실시 등 제도 개선
  - \* 매장문화재 조사의 과다경쟁 및 저가입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 저하 예방

### □ 근·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목록화 조사연구를 통해 등록문화재 및 향후 현대시기 유산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

- 근대문화유산 등록 확대 : ('14년) 종교관련 건축물 등 61건 등록
  - \* 근대문화유산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된 이후 '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'이 등록문화재로 처음 등록(2002년)/ 현재 총 654건이 등록됨
  - \* 문화재 보존 영역 확대('14년 종교 관련 등록 22건) 및 등록문화재 국민 인지도 향상 (12월 인지도 조사 결과 40.6점)
- 근·현대 문화유산 조사 : ('14년) 총 812건 목록화
  - \* 건축분야(태평양 전쟁 유적 등 337건), 동산분야(항일독립운동 분야 등 475건)

### □ 주민지원사업 기반 구축으로 고도 조성사업 본격 추진 토대 마련

-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직접 지원예산 확보('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' '15년 국비 80억원)
  - \* 고도에 어울리는 주거환경·가로경관 개선 추진 기반 조성으로 주민 숙원 해소 기대
- 고도의 골격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(4개고도별)
  - \* (경주) 대릉원 일원 토지매입, 도심 고분공원 조성계획, (부여) 사비왕궁터 정비, 나성 복원 (공주) 대통사지 주변 토지·건물 매입 및 정비, (익산) 옥룡천 옛물길 복원사업 토지매입 등

## □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관리 행정의 고도화 기반 마련

- 국민의 불편을 고려, 일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(허용기준 3건 조정)
  - \*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을 적용, 최고높이 완화(속초 조양동유적 주변)
- 현상변경 허가처리의 명확성·예측가능성 제고
  - \* 현상변경 허가 처리지침 제정,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개정
-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마련
  - \*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(5년) 조항 신설 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'15.1.28. 공포 예정)

## □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

- 국민적 관심도와 훼손도·노후도가 높은 문화재를 선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기 보수정비 추진 등을 통해 중요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관리 기반 구축
- 문화재 돌봄사업의 양적, 질적 확대를 통한 현장 밀착형 문화재 관리의 내실화 도모 (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정문화재 대비 돌봄사업 커버율 : 4,700건 / 6,752건 = 70%)
- 목조문화재별 화재 대응매뉴얼 수립·활용으로 화재 대비
  - \* 국보, 보물, 종민 등 목조문화재 544건 개별 매뉴얼 작성
- 궁능 및 중요문화재 다중 관람시설의 안전상황을 집중 점검(107개소)하고,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'14년 안전사고 미발생

## □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확인 및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정립

-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최초의 전수 점검을 실시, 위험도·훼손도 등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
  - \*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(총 7,393건) 관리실태 현황 및 전면조사
- 점검결과의 등급분류를 통해 보수정비 대상 문화재를 선별, 보수정비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
- 모니터링,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(국가지정, 등록)는 '14년 보수정비 또는 '15년 보수정비 예산반영( 429건/429건=100%) \* 시도지정문화재 50% 반영

## □ 문화재 수리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

- 문화재수리의 책임감리제 도입, 최저하도급 보장 등 추진(법률)
- 문화재수리 공사 감리 확대 및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요건 개선(시행령 12.26개정)
-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행정처분 개정 추진(시행규칙)
- 개방을 통한 일반국민 참여 및 국민 관심 제고
  - \* 문화재 수리현장 견학 및 관람코스 공개추진(10개소 공개/ 2,181명 견학)
- 자격대여(부실시공) 일제조사 등으로 수리품질 저하 예방
  - \* 자격대여 조사(수리업체 471개, 기술자 1,060명), 행정처분 실시(19명)
-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및 시방서 개선으로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

## □ 문화재청, 경찰청·대한불교조계종과 협조수사 통해 불교문화재 회수

- '14년 5월 말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 고미술품 경매업체가 주최한 경매에 도난된 불교문화재의 출품을 파악,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긴밀한 협조 아래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 시행
- 1988년 경상북도 청도군 대비사에서 도난된 「영산회상도」 등 전국 20개 사찰 불교문화재 48점 회수,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13명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('14.10월)
  - \* 불교 문화재 도난예방 협약식 체결(10.22/ 문화재청, 대한불교 조계종, 경찰청)

## □ 현장중심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제 추진

- 대학 정체성 확립을 통한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정립
  - \* (대학) 수리·보존의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·실무적 접근과 이를 활용한 문화재의 교육·콘텐츠·경영·(활용)행정 등의 영역에 중점
  - \* (대학원) 유물보존수복, 유물수리복원, 문화재방재관리, 문화유산활용에 중점
- 전통문화교육원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 내실화 추진
  - \* ('13년) 기초과정(7개) → ('14년) 기초과정(7개) + 심화과정(4개) + 현장위탁과정(3개)

## □ 해양문화유산 조사·연구 및 보호기능 강화

- 수중문화재 보물창고 태안해역에서 고 선박(마도 4호선) 발견
  - \* 조선 시대 백자의 해상운송 사례를 보여주는 백자다발 111점 인양
-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 수중문화재 공동조사, 수중문화유산 보호활동 전개

## □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브랜드화 추진

- 「궁중문화축전」 시범사업 추진 (참여자 만족도 81.24점)
- 경북궁 자경전 다례체험 등 12개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(만족도 87.79점)
-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  - \* 건 수 : ('13년) 45개 → ('14년) 70개 → ('15년) 105개 / '13년 대비 55.5% 증가
  - \* 예산액 : ('13년) 12억원 → ('14년) 18.3억 → ('15년) 20억 / '13년 대비 52.5% 증가
- 서원·향교에서 역사·문학 중심의 인문학 강좌 실시 ⇒ 문화유산 가치 제고
  - \* 145개 프로그램 2,090회 운영(참여인원 : 62,620명, 만족도 76.36점)

## □ 궁·능 관람확대 정책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

- 궁·능 무료개방 및 개방지역 확대
  - \* 무료개방 대상 확대(만18세이하→만24세이하, 한복착용자)
  - \* 비공개지역 공개 전환(사릉, 1월), 문화의 날(매월 마지막 수요일) 무료개방
- 고궁 야간 특별관람 확대 실시('13년 연 2회 17일 → '14년 연 4회 42일)
- 고궁, 왕릉 유적기관 관람객 증가 (약 13백만명/ 전년대비 18% 증가)

## □ 조선왕실문화 체험 및 가치 확산

- 왕실 유물 전시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
  - \* '종묘'특별전, 일본 '류큐 왕실의 보물' 특별전 실시
- 왕실문화 교육콘텐츠 제작 및 배포(왕실태교, 궁중다과 만들기 등 4종)
- 왕실문화 학술연구 자료 발간('왕실문화도감:궁중악무' 등)

## □ 문화유산 기록정보 접근성 강화

- 국사편찬위원회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정보 수집·연계

관리이력	기본정보	사진·동영상	도면	조사연구	합 계(누계)
10만	91만	100만	27만	11만	239만 건

-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DB 구축

\* ('05~'14)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총 116,688권 구축 ('14년) 13,955건

문서	카드	도면	사진필름	음성영상	보고서	소계
90,446	1,009	6,606	17,622	498	507	116,688

\* 문화재 기록화보고서 등 3,748권 전자책(e-book) 제작 달성

## □ 민간참여 확대와 민간협력 증대 등 민·관·산이 문화재를 함께 보호·관리함으로써 문화재 보호 효율성 제고

- 문화재보호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사업 및 후원금 증가
  - \* '14년 후원금 증가 ('13년 16.2억원, '14년 17.8억원)/ 문화재협약기관 신규(3개)
  - \* 라이엇게임즈(2012년 문화재지킴이 기업) 후원으로 EBS와 함께 '문화유산코리아'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공동 제작 방영('14.10.24~'15.3.20)

□ 문화유산교육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

- 전년 대비 예산증액(10억→13억)을 통한 지원단체(56개→63개) 확대로 참여자 수혜자 확대
- 사회소외계층(다문화,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및 교육 프로그램(무형유산 교육 추가) 다양화
- 심포지엄(1회), 권역별 교수법 실시(4회)로 교사 전문성 강화
- 초등 문화유산교육 수업 안(63개단체/150권) 및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홍보용 USB 배포(전국 초·중학교 등 12,000개)로 교육내용 다양화

□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보존·활용 확대 및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문화국가로의 위상 제고

•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과 : 총 39건 ('14년도 남한산성, 농악 등재)

세계유산	무형유산	기록유산
조선왕릉, 석굴암·불국사 창덕궁, 화성, 종묘 등 (11건)	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, 강강술래, 아리랑 등 (17건)	조선왕조실록, 훈민정음 동의보감, 난중일기 등 (11건)

\* 161개국 1007건 세계유산 등재 현황  
 • 이탈리아(50건), 중국(47건), 일본(18건)… **한국 11건(23위)**, 북한 2건

□ 국외문화재의 체계적 조사 등으로 환수기반을 조성하고, 한미수사공조를 통해 반출문화재 환수 성과

• ‘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’ 문화재 환수사상 2번째로 국제 수사공조에 의해 환수(4.25)

\* 수사공조 : 한국(문화재청·대검찰청) / 미국(국토안보부 수사국)

\* 국외문화재 최근 5년간('10~'14년) 1,688건 환수

구분	2009까지	2010	2011	2012	2013	2014
연도별 환수 수량	8,270	67	1,504	5	100	12
누 계	8,270	8,337	9,841	9,846	9,946	9,958

• 국외문화재 실태 조사를 통해 소재 확인(6개국 6,401점)  
 \* 미국(1,730점), 중국(1,760점), 일본(200점), 독일(623점), 러시아(1,887건), 영국(201점) 등

### (3) 개선·보완 사항

#### □ 국회 의사일정에 따른 법률 제정 및 개정 지연 발생

- ‘예비문화재’ 운용 제도 도입을 위한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 
(개정안 발의(13.3),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(14.2)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중)
- 「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 
(개정안 발의(12.11),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(13.6)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중)

- ‘예비문화재 제도’ 도입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, 합리적인 방안 마련
- 법안심사(교문위, 법사위) 대비 소위원회 대상으로 법안 설명 등 지속적인 국회 협의를 통한 조속한 법 제·개정 도모

#### □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

-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라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일부 허용기준이 아닌, 전체 허용기준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
- 규제 뿐 만 아니라, 문화재에 어울리는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주민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대내외 관심 증가

- ‘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’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재조정

#### □ 중요문화재 전략적 관리 기법 향상 필요

- 문화재 이력 통합관리 미비 및 각종 조사 점검의 정책 환류 미흡
- 문화재 현장의 국민 참여 모니터링 여건 조성 필요

- 중요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, 문화재정보 공개 등 현장밀착형 정책 강화

□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가시적 성과 미흡

- 문화재 관리상태 등 모니터링 등에 대한 온라인 활동보고 참여율 하락으로 문화재 관리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피드백 감소

\* 최근 3년간 문화재지킴이 온라인 활동보고 참여 실적 : ('11년) 3,256건 → ('12년) 2,902건 → ('13년) 2,637건 → ('14.11월) 1,620건

- 문화재지킴이 양적 증대보다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 마련



### 3. 2013년 자체평가결과 개선실적

개선(지적)사항	조치계획	추진(개선)실적
<p>○ 역사문화환경 저해시설물(송전탑, 전신주 등) 관련 정책환경 변화(철탑교체 관련 문화재청 행정소송 패소,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규모 축소 등)로 일정 추진 일부 지연</p> <p>☞ 역사문화환경 저해 시설물 정비 우선 순위를 토대로 향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반영 등</p>	<p>○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반영 재 추진</p> <p>- '15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 지침 개정 요청(기획재정담당관실 협조요청)</p> <p>- '13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 잔액 및 '14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침변경으로 필요한 시설물 이전·정비(담당부서 협조요청)</p> <p>○ 관계 기관(한국전력, KT 등) 협의 실시</p> <p>-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신규 시설물 설치 방지 협의</p> <p>- 기 설치된 시설물은 지중화사업 유도 등</p>	<p>○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반영 추진</p> <p>- '15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 지침 반영 등</p> <p>- 경주 옥산서원 주변 불량가옥 정비 사업 추진</p> <p>○ 관계 기관(한국전력, KT 등) 협의 실시</p> <p>- 한국전력공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잠정 보류 등 여건 변화로 어려움이 있으며, 지속적인 협의 필요</p>
<p>○ 문화재방재 하드웨어(설비) 및 소프트웨어(인력)의 현장별 개별 관리에 의한 종합적·체계적 관리대책 미흡</p> <p>☞ 문화재방재 통합관리 환경 조성을 통한 선제적·체계적 재난대응기반 구축 필요</p>	<p>○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실시('12~'16년)</p> <p>- 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축('12년~'13년)</p> <p>- 문화재 영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(~'16년)</p> <p>-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등 관련 자료 전산화(~'16년)</p> <p>○ 구축된 DB 자료를 분석·활용하여 선제적·체계적 재난대응기반 구축</p>	<p>○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추진</p> <p>- 문화재청-강원도 소재 6개소 문화재 영상 시범운영(2월~12)</p> <p>- 방재설비 설치 현황 전산화(2월~12)</p> <p>- 방재설비 안전점검 등록 시스템 시범 운영(4~6월)</p> <p>○ 문화재 재난 및 안전정보구축 사업(2차) 추진(6월~12월)</p>
<p>○ 각종 기술과 학제간 융합의 흐름 등을 반영한 자연유산 유형별 체계적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 전반에 대한 주기적 검토 미흡</p> <p>☞ 자연유산 분야 유형별 관리 지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제도화</p>	<p>○ 천연기념물·명승 관리지침 주기적 관리</p> <p>- 훈령형식 관리지침: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도래시 재검토</p> <p>- 내부지침: 3년마다 소관규정에 대해 적정성 검토 실시</p>	<p>○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도래 기간 정비 및 적정성 검토 완료(2014.3.28)</p> <p>-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</p> <p>- 천연동굴 보존·관리 지침</p> <p>-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</p> <p>- 화석지 보존·관리 지침</p>
<p>○ 국립고궁박물관의 주요 기능은 조사 및 전시업무로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(5개분야)를 통합하여 지표화 필요(분야별</p>	<p>○ 전시 및 교육 등 주요기능을 우선하여 만족도 조사(5개 분야) 분야별로 가중치 적용하여 지표화</p> <p>- 전시관람객 만족도(25%), 전시 분야 전문가 만족도(10%), 교육프로</p>	<p>○ 2014년도 문화재청 성과평가 제도개선(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/훈령 317호)에 따라 '문화재청 성과지표 POOL'를 구축하고, 구축된 풀 내에서 중부</p>

개선(지적)사항	조치계획	추진(개선)실적
<p>만족도 가중치 적용) *전시관람객 만족도, 전시분야 전문가 만족도, 시설분야 전문가 만족도,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, 문화행사 참가자 만족도</p>	<p>그림 참가자 만족도(30%), 전시 관람객 시설분야 만족도(20%), 문화행사 프로그램 만족도(15%) · 전년도 만족도지표 점수도 가중치 적용하여 86.74점 → 86.67점으로 환산</p>	<p>되지 않게 주요정책지표와 조직 성과지표를 사용해야함. ○ 이에 전시 및 교육 등 주요기능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각각의 지표로 구성하여 사용해야 함에 따라 조치계획인 만족도(5개) 분야별 가중치 적용 통합 지표화는 추진 불가</p>
<p>○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육부·문체부 지자체 등 협력 체계 구축 미흡 ☞ 문화유산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</p>	<p>○ 문화유산교육 협력 체계 구축 -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유산교육 운영 및 MOU 체결(3월)</p> <p>○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 - 세계문화유산 클레이 애니메이션 추가제작·보급(10월)</p> <p>- 초등 문화유산 수업안 책자 발간·배포(6월)</p>	<p>○ 문화유산교육 협력 체계 구축 -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문화유산교육 운영 및 MOU 체결(3월)</p> <p>-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유산교육 홍보를 위한 기능성게임 개발 MOU 체결(3월)</p> <p>○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 - EBS와 청소년 대상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·방영 MOU 체결(4월)</p> <p>- 초등 문화유산 수업안 책자 발간·배포(5월)</p>